

서울일보

구의회 소식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

강북, 하반기 의정활동 준비 1박 2일 의원세미나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곧 있을 제144회 임시회의 주제인 산 삼의를 비롯해 본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광범위한 의정 현안을 대비한 구 실습실습을 위한 활동으로 대비가 한창이다.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지난 23·2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들의 의견 향상을 위해 양평 한화콘도에서 의원세미나를 실시

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6대 강북구의회 개원으로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의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의정활동을 위한 지식의 습득, 초·재선 의원간의 단합, 그리고 의원 서로 간의 경험 및 지식을 나누는 공유의 시간으로 활용됐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여정을 푼

의원들에게 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자 전남대 행정대학원 원장이신 오재일 교수는 ‘지방자치와 지역 정책’을 주제로 지방자치 및 의회 민주주의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기법, 효율적인 의원 입법활동 등을 내용으로 의정활동의 지식을 전달했다.

다음날 박문수 의원은 제2·3대 구의원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 3선의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해 주었으며, 재선 의원인 최선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방향’을 주제로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광범위한 의정 현안을 대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유근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짧은 일정이지만 의원들에게 다양한 지식의 전달과 서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박문수 기자 pns@seoullibbo.net

우리일보

땀방울로 의정활동 준비

강북구의회, 의원세미나 실시

강북구의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의원들의 의견 향상을 위해 양평 한화콘도에서 의원세미나를 실시했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여정을 끝난 의원들에게 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자 전남대 행정대학원 원장이신 오재일 교수는 ‘지방자치와 지역 정책’을 주제로 지방자치 및 의회 민주주의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기법, 효율적인 의원 입법활동 등을 내용으로 의정활동의 지식을 전달했다.

다음날 박문수 의원은 제2·3대 구의원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 3선의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해 주었으며, 재선 의원인 최선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방향’을 주제로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광범위한 의정 현안을 대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여정을 끝난 의원들에게 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자 전남대 행정대학원 원장이신 오재일 교수는 ‘지방자치와 지역 정책’을 주제로 지방자치 및 의회 민주주의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기법, 효율적인 의원 입법활동 등을 내용으로 의정활동의 지식을 전달했다.

/송준길 기자
ksong@woorilbo.com

전국매일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세미나
추경안 등 의정현안 대비만전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제144회 임시회의 추경안 심의를 비롯해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광범위한 의정 현안을 대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의원들이 의견 향상을 위해 양평 한화콘도에서 의원세미나를 실시했다.

첫날인 지난 23일에는 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자 전남대 행정대학원 원장이신 오재일 교수는 ‘지방자치와 지역 정책’을 주제로 지방자치 및 의회 민주주의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기법, 효율적인 의원 입법활동 등을 내용으로 의정활동의 지식을 전달했다.

최인 의원 입법활동 등을 감의했다.

24일에는 박문수 의원이 제2·3대 구의원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 3선의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해 주었으며, 재선 의원인 최선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방향’을 주제로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광범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를 추천하는 등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유근성 의장은 “짧은 일정이지만 의원들에게 다양한 지식의 전달과 서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강북신문



2010 을지 훈련 근무자 격려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은 8월 16일 강북구청, 강북경찰서, 도봉서방서 종합 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해 무더위 속에서도 '2010 을지훈련'에 임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은 강북경찰서를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 후 훈련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있다.

◆ 동정

자유수호 웅변 예선대회 참석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은 8월 20일 오후3시30분 삼각산 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 자유총연맹 강북구지회가 주최

하는 '제47회 전국 자유수호 웅변 강북구 예선대회'에 참석하여 참가자들과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제144회 임시회 26일 12일간 열기로

강북구의회, 19일 운영위원회 열어 임시회 일정 확정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19일 오전 11시 제14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8월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였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6대 의원 구성 후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약 154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강북구의회 민생 행보의 시작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